

## 금강반 학습 계획

2020년 3월 14일  
담임: 류민희

시간	수업내용	교재 및 장소
<b>1교시</b> (9:30~10:00)	<단어 퀴즈> 1.사피엔스 단어 퀴즈 2.코로나 19 관련한 안전지침 단어 퀴즈	P.1 -2
<b>2교시</b> (10:00~11:00)	다양한 관용표현 연습	P. 5~9
<b>11:00 ~11:30</b>	점심 또는 휴식	
<b>3교시</b> (11:30~12:30)	<단편소설 읽기와 이해하기> 마지막 임금님 (글: 박완서)	P.10~14
<b>답 맞추기</b> (12:30~12:40)	P.1,2 단어퀴즈 P.13 글의 이해 답 맞추기	이메일 확인

### < 수업 안내 >

1. 시간표에 따라 학습계획서를 공부하세요.
2. 단어 퀴즈의 답과 글의 이해의 답은 이메일로 토요일 12시 반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맞춘 후 틀린 갯수와 글의 이해(P.13)페이지를 사진 또는 스캔해서 선생님 이메일(belleryu50@gmail.com)로 보내주세요.
3. 주중에 학습계획서 P. 5~9 를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다음 주 관용표현 퀴즈)

## 사피엔스 단어 퀴즈

틀린 갯수: \_\_\_\_\_

이름: \_\_\_\_\_

- 다음 단어의 영어 뜻을 적으세요.

1. 행성: \_planet\_\_\_\_\_
2. 종말: \_end\_\_\_\_\_
3. 규범: \_norm\_\_\_\_\_
4. 유전자: \_gene\_
5. 혁명: \_revolution\_
6. 원자: \_atom\_\_\_\_\_
7. 물질: \_matter\_
8. 진전: \_progress\_
9. 결합: \_combination
10. 상호작용: \_interaction\_

- 다음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를 적으세요.

11. Molecule: \_분자\_
12. structure: \_구조\_
13. generation: \_세대\_
14. species: \_\_종\_\_
15. prehistoric era: 선사시대\_
16. fundamental: \_근본적\_

- 지난 주에 학습한 <사피엔스 서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맞게 연결해 보세요.

- |             |                            |
|-------------|----------------------------|
| 17. 물리학 (d) | a. 원자, 분자 및 그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 |
| 18. 생물학 (b) | b. 생물에 대한 이야기              |
| 19. 화학 (a)  | c. 인류문화가 발전해온 과정           |
| 20. 역사 (c)  | d.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 |

## 코로나 19 관련한 안전지침 단어 퀴즈

틀린 갯수: \_\_\_\_

이름: \_\_\_\_\_

- <보기>에서 해당되는 한국어 단어의 영어 뜻을 찾아 적으세요.

<보기>

Share	Guidance	Mainland	Disease
diagnosis	quarantine	Nearby	Pneumonia
Go to school	high temperature	observe(follow)	spread

1. 질병: \_\_disease\_\_\_\_
2. 지침: \_\_guidance\_\_\_\_
3. 공유하다: \_\_share\_\_\_\_
4. 본토: \_\_mainland\_\_\_\_
5. 등교하다: \_\_go to school\_\_\_\_
6. 격리하다: \_\_quarantine\_(separate)
7. 고열: \_\_high temperature(high fever)\_\_\_\_
8. 진단: \_\_diagnosis\_\_\_\_
9. 준수하다: \_\_observe(follow)\_\_\_\_
10. 폐렴: \_\_Pneumonia\_\_\_\_
11. 전파하다: \_\_spread\_\_\_\_
12. 인근: \_\_nearby\_\_\_\_

## 관용어(Figurative Idiom)

- 관용어란?

- 둘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져 새로운 뜻을 지니는 말

-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흔히 쓰는 표현

-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글짓기를 할 때 관용어를 사용하면 말과 글이 돋보입니다.

- 다음 대화를 읽고 관용어를 찾아 그 뜻을 추측해 보자.

㉠ 서경: 뭐? 그 남잘 또 만났어?

㉡ 진: (주방에서 허드렛일 하며 심드렁한)어.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 그러더라

㉢ 서경: 그래서 뭐라 그랬어? 너 설마 초 친 거 아니지?

㉣ 진: 그러자 그랬어.

㉤ 서경: 정말? 잘 했어 잘 했어. 이제까지 니가 한 짓 중에 최고로 잘한 짓이다. 두 번씩이나 너한테 당하고도 너한테 호감 있는 거 보면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닌 거야. 삼식인지 삼태긴지 웃기지도 않는 그 놈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랑 한번 잘 해봐, 알았지?  
(진의의 머리를 만져주며) 초 치지 말고 잘해. 알았지?

-> 찾은 관용어: \_\_\_\_\_

뜻: \_\_\_\_\_

\* 다음 대화를 읽고 이 대화에서 의사소통(communincation)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찾아 적어 보세요.

(유진이와 운전면허 시험을 치고 온 어머니의 대화)

유진: 엄마, 시험 붙었어?

어머니: 말도 마라, 애. 오늘 또 미역국 먹었다.

유진: 엄마는 미역국을 싫어하잖아.

---

---

## 다양한 관용표현 공부

- 아래의 관용표현을 공부하고, 예)의 문장을 밑줄친 부분에 따라 적으세요(다음 주 퀴즈)

1. 가면을 쓰다.     -> 본래 마음을 감추다.

예) 그 친구는 늘 친절하긴 한데 뭔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

---

2. 바가지를 씌우다. -> 원래 값보다 비싼 값을 요구하다.

예) 그 가게는 바가지를 씌우는 것으로 유명하니 조심해라.

---

3. 파리를 날리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

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근 음식점이 모두 파리를 날리고 있다.

---

4. 피를 보다       -> 피해를 당하다.

예) 부모님이 매일 밤 싸우셔서 나와 내 동생이 피를 보고 있다.

---

5. 다리를 놓다     -> 중간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다.

예) 주형이가 다리를 놓아 주어 어제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

6. 미역국을 먹다   ->시험에 떨어지다.

예) 언니가 이번에도 미역국을 먹어서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이다.

---

7. 낮가족이 두껍다 ->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예) 낮가족이 두껍기도 하지, 어떻게 그런 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할 수가 있지?

---

8. 비행기를 태우다 ->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다.

예) 비행기 좀 그만 태워라. 나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거 알아.

---

9. 두 손을 들다 -> 상대방에게 항복하다.

예) 나는 동준이에게 두 손을 다 들었다. 동준이는 정말 끈질기구나.

---

10. 깡통을 차다 -> 거지가 되다

예) 그 사람은 예전에는 부자였는데 사업이 망해서 지금은 깡통을 차고 있다.

---

11. 가려운 곳을 긁어 주다. -> 남에게 꼭 필요한 것을 잘 알아서 만족시키다.

예)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 지 몰랐는데 선생님께서 항상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듯 궁금했던 것들을 잘 알려 주신다.

---

12. 가방 끈이 길다.(짧다) -> 많이 배워 학력이 높다 (낮다)

예) 그 친구는 가방끈이 길긴 하지만, 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예2) 그 친구는 가방끈은 짧지만, 참 상식이 풍부하다.

---

13. 가슴에 새기다. -> 잊지 않게 기억하다.

예)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

14. 가슴이 미어지다.-> 슬픔이나 고통으로 힘들게 되다.

예)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힘들게 투병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

15. 가시밭길을 가다 -> 힘들고 험한 삶을 살다. \*가시밭길: a thorny path

예) 싹다르타는 편안한 삶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갔다.

---

16. 앓는 소리를 하다-> 쓸데 없이 걱정하는 소리를 하다. Whine and complain

예) 앓는 소리 좀 그만 해라. 항상 일등하면서 왜 그러니.

---

17. 간이 떨어지다. -> 몹시 놀라다.

예) 밤중에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다 갑자기 우는 소리를 들어서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

18. 간이 크다 -> 겁이 없고 매우 대담하다.

예) 그 남자는 정말 간도 크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

19. 간에 기별도 안 가다 -> 너무 적게 먹어 먹은 것 같지 않다.

예) 너무 배가 고파 햄버거를 사 먹었는데 간에 기별도 가지 않았다.

---

20. 간이라도 빼어 줄 듯 -> 무엇이랄도 아낌없이 줄 듯한 태도

예) 그 친구는 간이라도 빼어 줄 듯 나에게 잘 해 주며 모든 것을 공유한다.

---



21. 걱정도 팔자다 ->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에 괜한 걱정을 할 때

예) 걱정도 팔자라더니, 너는 정말 별 쓸데 없는 것을 걱정하는구나.

---

22. 애간장을 태우다. -> 몹시 초조하고 불안하다.

예) 언니의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리며 태유의 부모님께서 애간장을 태우고 계셨다.

---

23. 갈림길에 서다 -> 선택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다.

예)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

24. 강 건너 불구경 -> 자신에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관심없는 모양.

예) 아무리 니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이니?

---

25. 개미 새끼한 마리 얼씬하지 않다 -> 아무도 없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길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

26. 고삐를 늦추지 않다 -> 긴장을 유지하다

예) SAT 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와서 잠시도 고삐를 늦출 수 없다.

---

27. 콧대를 꺾어 놓다(코를 납작하게 하다)      -> 상대방의 자만심이나 자존심을 꺾어  
기를 죽이다.

예) 이번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그 친구의 콧대를 내가 꺾어 놓겠어.

---

28.뛰어봤자 벼룩이다.      -> 도망가봤자 결국 잡힌다.

예) 니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내가 널 못 잡을 줄 알았니?

---

29. 불똥이 튀다      -> 재앙이나 화가 제 삼자에게 미친다. (become the next target)

예) 언니와 오빠가 싸웠는데, 결국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었다.

---

30.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 정말 믿을 수 없이 신기한 일이다.

예)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어떻게 내가 방금 주차한 차가 사라질 수가 있지?

---

<단편소설 읽기와 이해하기>

- 아래의 글을 읽고 P.13의 글의 이해를 풀어보세요. (P.14 단어리스트 참조)>

## 마지막 임금님

글: 박완서

옛날에 사시사철 춥지도 덥지도 않게 땅은 기름진 고장에 작고 아름다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도 그 나라의 자연만큼이나 자비로워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나쁜 짓을 한 죄인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 오래전부터 비어 있어 관광지가 된 지 몇 년째입니다. 백성들이 사는 고장은 어디나 맑고 청결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어둡고 부자유스러운 고장이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구경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르게 행복하니까 싸우거나 빼앗거나 속일 일이 없고, 그런 잘못을 가려내어 벌을 주기 위한 법도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몇 장 안되는 얇은 법전에 써 있는 법조문을 써 먹지 않은 지도 감옥을 써먹지 않은 것만큼이나 오래 되었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써먹을 일이 생겨도 큰일입니다. 법조문은 너무 오래 아무일도 안 하고 햇볕을 본 일도 없어 죽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헌법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나라의 헌법은 일 조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고루 행복할 권리가 있다. 단 임금님보다는 덜 행복할 이유가 있다.”

이것이 이 나라 헌법의 전문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헌법대로 고루 행복하지만 임금님보다는 덜 행복합니다.

이 나라를 세운 임금님은 백성들이 고루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던 당초의 큰 뜻을 이룩했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한 임금님이 백성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지 못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날로 더해서, 백성들이 헌법으로 정한 의무를 한 사람이라도 하루라도 게을리할까 봐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사기꾼도 없는 나라건만, 많은 관리를 두어 행여 임금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생길까 봐 감시하는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사람도 임금님보다 더 행복해서 붙잡히거나 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시받고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백성들은 조금씩이나마 고루 불행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의 또 하나의 근심은 자기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마음놓고 행복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도 이 세상에 행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걸 차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늙어 갈수록 그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잠 못 이루고 생각을 거듭한 끝에 한 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이 죽은 후에 일제히 불행해질 수 있도록 그 예행연습을 지금부터 백성들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궁성에서 조포가 슬피 우는 것을 신호로 상점은 문을 닫고, 백성들은 회색 옷을 입고 슬피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 때 임금님은 궁성의 가장 높은 망루에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걸 굽어 보며 앞으로 다가올 죽음의 공포를 잊고 혼자만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이 가짜로 죽고, 백성들이 그 후의 불행을 예행연습하는 날이 일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으로 늘어나고 다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어나고 그러다가 아무 때나 임금님이 마음 내킬 때에는 언제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불행의 예행연습이 없는 날이면 임금님은 몰래 궁성을 빠져나와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미행(무엇을 몰래 살피기 위하여 남 모르게 다님)을 다니기도 합니다. 임금님은 백성들이 임금님보다는 덜 행복해야 된다는 헌법이 잘 지켜지고 있나를 감시하는 일을 관리들에게만 맡기고 있으려니 안심이 안되어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행을 다녀온 날이면 임금은 다른 날보다 행복했습니다. 임금님이 만난 백성들은 하나같이 자주 있는 불행의 예행연습 때문에 눈이 퉁퉁 부어 있고 행여나 임금님보다 더

행복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으로 일그러져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임금님보다는 덜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미행을 갔다가 만난 한 사나이 때문에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나이는 임금님이 만난 어떤 백성하고도 달랐습니다. 그 사나이는 늙지도 젊지도 않은 나이에 보통으로 생긴 얼굴에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임금님이 깜짝 놀랄 만큼 딴 사람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궁성으로 돌아온 임금님은 깜짝 놀란 까닭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딱 치며 그 사나이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한층 놀랐습니다. 그 사나이는 백성들 중에서 뛰어나게 행복해 보였을 뿐 아니라 임금님보다도 행복해 보였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즉시 관리를 풀어서 그 사나이에 대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사나이의 신분은 마을의 우두머리인 촌장이었고, 아름다운 아내와 착한 아들딸과 넓고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살이 안 이상 그를 임금님보다 덜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임금님은 그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빼앗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촌장 자리입니다. 임금님은 뭐니뭐니해도 권력처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촌장의 권력이란 임금님의 권력에다는 덜 것도 아닙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을 간섭하고, 해결하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마을 안에서의 작은 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힘으로 처리한 일은 모두 보잘 것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신랑을 놓고 두 여자가 시집가고 싶어 할 때, 어느 여자를 시집보낼 것인가, 부모를 일찍 여의어 고아가 된 아이들을 누구 집으로 입양시킬 것인가, 자식이 먼저 죽어 외롭게 된 노인을 누가 모실까 등을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오래 생각하고 불평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해결해 준일이 있습니다.

이런 보잘것 없는 권력이나마 빼앗기니 촌장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촌장 아닌 보통 사람이 된 남자의 얼굴이 딴 백성들과 닮은 모습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확인한 임금님은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어디엔가 임금님보다 행복한 백성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행을 나가게 되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촌장 자리를 빼앗긴 사나이가 여전히 임금님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글의 이해>

- <마지막 임금님>을 읽고, 내용과 맞으면 ○,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1.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감옥에 죄인이 많이 갇혀있어 안전한 나라이다. (x)
2. 이 나라의 법전은 매우 두껍고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다. (x)
3. 임금님은 백성들이 고루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이 없이 행복합니다. (x)
4. 이 나라에는 도둑놈도 사기꾼도 없기 때문에 관리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x)
5. 임금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행복하지 못할까봐 근심이 많습니다. (x)
6. 임금님은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날에 불행을 여행연습합니다. (o)
7. 미행을 다녀 온 날은 임금님은 늘 불행을 느낍니다. (x)

- 임금님이 만든 ‘행복’에 관한 헌법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나라의 백성들은 고루 행복할 권리가 있다. 단 임금님보다는 덜 행복할 이유가 있다.

- 임금님이 늘 불안한 이유를 글에서 찾아서 적으세요.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한 임금님이 백성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지 못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날로 더해서, 백성들이 헌법으로 정한 의무를 한 사람이라도 하루라도 게을리할까 봐 늘 불안합니다.

- 임금님이 미행을 나가다가 만난 사나이에겐 깜짝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에서 찾아서 적으세요.

사나이는 딴 사람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뛰어나게 행복해 보였을 뿐 아니라 임금님보다도 행복해 보였던 것입니다.

## 소설 <마지막 임금님> 단어리스트

1. 사시사철: 사계절 내내, year-round
2. (땅이) 기름진: 땅에 영양분이 많아 농사짓기 좋은, fertile
3. 고장: 마을, village
4. 자비로운: 용서를 잘 해 주는, merciful
5. 죄인: 죄를 지은 사람, sinner, prisoner
6. 법전: 법이 적혀 있는 책, code of laws
7. 법조문: 법전에 적혀 있는 내용 legal provisions
8. 헌법: 국가의 법의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 constitution
9. 고루: 골고루, equally
10. 사기꾼: 타인(남)을 속여 이익을 얻는 사람, swindler, con man
11. 관리: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 government official
12. 통곡하다: 소리를 높여 슬피 울다, wail
13. 예행연습: 미리 하는 연습, rehearsal
14. 수수한: 화려하지 않은, plain
15. 권력: 정치적인 힘, power